

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 2년 전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래 집에서 천정을 치는 행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거실, 주방 및 아이 방에 매트를 설치하였고, 특히 거실에는 매트를 두 겹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걷기만 해도 천정을 치며, 앉아서 책을 보거나, 그림을 그리는 경우에도 천정을 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은 바로 윗집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임에도 저희 집에서 느낄만한 다른 집의 소음에도 천정을 칩니다.
- 아래 집은 3일 이상 우편을 가져가지 않는 등 거의 온종일 집에만 있는 것으로 보이며, 소음만을 주시하고 있어 2~3보만 걸거나, 청소기 소리 등 생활소음 수준에도 천정을 치고 문을 세게 닫는 등 보복성 소음을 발생합니다. 직접 찾아와 조금 전에 본인이 천정을 친 소리를 못 들었냐고 묻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집 안의 매트도 제거 후 높은 두께로 빈 곳이 없도록 재설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음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단지 내 관리사무소와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도 접수를 하였으나, 아래 집에서 모두 거절하여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7월28일 오후 14:45부터 15분 동안 8회 지속되어 두려움을 느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본인이 천정을 쳤다고 시인하였으나, 경찰이 돌아가고 30분 지나자 바로 천정을 치는 등 정신적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 8월5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소음 수준을 측정하였고, 집을 비운 24시간 동안에도 천정을 치는 충격음이 발생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8월 15일 오전 12시 17분과 9월 13일 오후 11시 30분에는 가족이 모두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정을 치는 등 소음 행위가 점점 심해져 집에 있는 시간이 두렵고 일상생활이 어려워 재정을 신청합니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 본 피신청인은 그동안 몇 차례 주거를 옮기며 단 한 번도 층간소음 등으로 문제를 겪은 일이 없었습니다. 윗집 아이가 뛰는 가정도 있었으나 오래가지 않았고, 어른의 발소리에도 거리낌 없이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처럼 아이와 어른이 함께 뛰는 가구를 만난 건 처음인지라 당황스러워 처음엔 주의를 주고자 했던 적도 있었으나 포기한지 오래전이며 이후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정신청의 취지와 이유에 그 어떤 것도 해당하지 않기에 바로잡고자 의견을 드립니다.
- 본인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집에서 작업을 해오던 전문직 종사자로 비교적 조용히 지내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윗집의 소음으로 실랑이를 겪으며, 아이가 뛰놀면 거실부터 맞은편 방까지 동선이 뚜렷한 소음이 아침과 밤을 가리지 않고 수차례 발생했고, 거실 바닥을 내리찍는 갑작스런 진동에 고양이들마저 놀라 도망가거나, 식사 중에도 지속적으로 머리 위를 때리는 소리에 불편을 겪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더욱이 어른까지 뛰는 날이면 집은 잠시도 견디기 힘들 만큼 괴로운 곳이 되었고 정신적인 고통은 물론 업무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주의를 주고자 했던 적도 있었지만 소음이 잦아드는 건 잠시뿐 얼마 가지 않아 같은 소음이 반복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 한번은 신청인이 찾아와 집안에 매트를 깔았기에 신청인 가구의 소음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아이와 어른이 뛰노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는 지난 7/27, 천장을 친다는 신청인의 허위

신고로 찾아온 경찰이 중재를 위해 직접 신청인의 거실 매트에서 뛰는 걸 아래층에서 들어보며 심한 진동이 발생한다는 걸 양측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 신청인은 이유서에 피신청인이 집에 찾아와 천장을 치는 소리가 안 들리느냐며 물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이며 해당 맥락은 약 2년 전 신청인의 가구에서 문틀에 그네를 달아 소음이 발생했던 때의 일입니다. 당시 피신청인은 지속적으로 삐걱거리는 소음에 몇 주간을 시달리다 원인을 찾고자 피신청인의 아래층부터 소음을 따라가 신청인의 집을 처음 방문하였고, 그네를 확인 후 조용히 해줄 수 없겠느냐 당부했지만 두 층 아래까지 울리는 소음을 안 들린다고 모른 척 잡아떼는 신청인에게 청력에 이상이 있는지 물었던 것입니다. 피신청인이 그간 소음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은 본인이 주로 집에서 작업하고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반려동물을 위함도 있지만 주된 이유는 위와 같은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 7/28 신청인이 말한 소음이 발생했던 시각에 본인은 화장실에 있었고, 현관문을 강하게 여닫고 들어와 발을 쿵쾅거리는 소리에 이어 신경질적으로 수차례 벽이나 바닥을 도구로 내려치는 듯한 소음이 위아래 방향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들려왔습니다. 얼마 후 신고를 받고 방문한 경찰에게 정황을 설명하며 당시 소음이 너무도 고의적이라 느껴져 본인도 화장실에서 뛰쳐나오며 핫김에 문을 세게 닫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신청인의 이유서에 본인이 천장을 쳤다고 자백했다는 내용은 허위입니다. 이는 여러 번에 걸쳐 방문한 경찰에게 반복해 정황을 설명했기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래층 가구는 평소 집을 비우던 시간이기에 본인은 당시 소음이 발생한 곳을 신청인의 가구라고 추정하였고 당시 경찰에게도 이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후 피신청인은 이유서를 통해 당시 신고자가 신청인이었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 신청인의 가구에서 소음 수준을 측정했다는 8/5일 피신청인은 거실 베란다 쪽으로 공사소음과 진동을 감지했으나, 이전에도 몇 차례 예고나 동의 없이 내부공사를 해왔던 신청인이 당일에도 어딘가 공사를 한다고 여겼고 굳이 확인할 필요를 못 느낀 체 다음날인 6일 오전에도 계속된 소음과 진동을 참았습니다.
- 이후 주말이 지나 8/8 오후 3시경 관리사무소를 통해 천장을 천다는 허위 민원을 받았고 피신청인은 지난 5일부터 공사 진동이 있어왔지만 천장을 치는 일은 일절 없었음을 관리소장에게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으로부터 맞은편에 이사 예정인 가구가 내부공사 중이었으니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는 메시지를 관리소장을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 도대체 맞은편 가구에서 내부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관리사무소를 통해 알려진 신청인이, 해당 일에 측정된 소음이 피신청인 가구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본인은 이해도 안 될뿐더러 되레 의아합니다.
- 크기(dB)는 모르겠으나 이유서에 언급된 소음측정의 소음은 신청인의 맞은편 가구 공사소음으로 의심되며, 당시 공사 진동이 기묘하여 다음날 8/6 토요일 오전 피신청인의 아래층 가구에서 조차 이를 감지하였는지 밖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다 위층에 올라간 직후 소음이 중단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정황은 피신청인의 아래층 가구와 관리사무소장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그간 방문했던 경찰에게도 진술한 바 있지만 피신청인은 2년 가까이 벽이나 천장에 충격을 가한 일이 없으며, 마찬가지로 신청인이 8/15 일자 주간과 야간에 들었다는 충격음 역시 피신청인의 가구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 해당 휴일 야간에 거실에 있었던 본인도 위층 승강기 쪽에서 무거운 물건을 복도에 떨어트리고 굴리는 소음을 들었고 아마도 전 주까지 공사를 하던 신청인 맞은편 가구의 소음이라고 대수롭잖게 여겼던 기억이지만 이마저도 신청인의 맥락 없는 억지 주장에 일부가 되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피신청인은 그동안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인으로부터 위와 비슷한 열토당토않은 민원을 받고서 차라리 천장을 쳐서 비교라도 해주고픈 생각마저 들었으나 묵묵히 부정하며 참아왔고, 가족과 점심 식사 중에도 천장을 친다는 신청인의 허위 신고를 받고 방문한 경찰에게 소음이 나던 장소의 촬영을 허락하는 등 불쾌함을 무릅쓰고 원인 규명에 협조해왔으나, 신청인의 이유서를 접하고서 그간의 인내가 무의미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건 어떤 이유에서 인지 7/28 미상의 소음 이후 두 달 가까이 이전의 극심했던 소음은 들려오지 않았고 피신청인은 부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신청인이 이유서에서 주장하는 소음들은 피신청인과 무관하며, 비록 대부분이 억측과 허위였으나, 이유서에 담긴 가상의 불안으로부터 신청인도 고통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현황

- 분쟁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공동주택이 밀집하여 주변에 사업장 및 도로교통 소음원의 영향이 없는 정온한 환경이다.

나. 당사자 주거 아파트 현황

- 주 택 명 : △△아파트
- 위 치 : ○○구 ○○로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연 면 적 : 124,291 m^2
- 규 모 : 지하1층, 지상21~23층(11개동 833세대)
- 용 도 : 공동주택
-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사용승인 : 2000. 8.14

3.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 신청인이 제출한 층간소음 측정자료 및 현지조사 등 사실조사로 층간소음이 신청인 주거생활에 미친 영향을 판단하였다.
- 층간소음 측정결과
 - 일 시 : 2022. 8. 5.(월) 14:30 ~ 8. 6.(화) 14:29
 - 측정기관 : 환경보건협회
 - 측정장소 : 거실
 - 측정구분 : 직접 충격소음 분석
 - 배경소음 : 주간 24dB(A), 야간 22dB(A)

〈표1〉 1분 등가소음도(LAeq)

구 분		주 간 (06:00 ~ 22:00)	야 간 (22:00 ~ 06:00)	비 고
등가소음도 dB(A)	시간	1분	1분	
	기준	48	43	
	측정치 (일시)	31 8.6(13:12)	27 8.5(22:36)	

〈표2〉 최고소음도(LAFmax)

구 분		주 간 (06:00 ~ 22:00)		야 간 (22:00 ~ 06:00)		비고
최고 소음도 dB(A)	기준	62	초과횟수 (3회/시간)	57	초과횟수 (3회/시간)	
	측정치	55	(8.5. 16:43)	50	(8.5. 22:36)	
		54	(8.6. 09:46)	46	(8.5. 22:58)	
		53	(8.6. 13:12)	47	(8.6. 04:12)	

4. 판 단

- 당사자 주거 아파트 건물은 2000년 8월 14일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으로 2005년 7월 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신청 건물에 비해 층간슬라브 두께가 얇아(150mm, 현행 210mm) 소음에 더 취약한 구조이며, 공동생활 공간의 특성상 소음의 전달경로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층간소음도 직접 충격소음 측정결과 1분 등가소음도는 주간 31dB(A), 야간 27dB(A)이며, 최고소음도는 주간 55dB(A), 야간 50dB(A)로 수인한도 이내로 측정되었다. 또한 신청인이 녹음한 소음은 인과관계 입증자료로서 수인한도를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5. 결 론

-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 방문결과, 관련서류, 유사 사건의 피해배상 사례 및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